

故 權五憲 博士님을 哀悼하며

金 再 韓*

12월의 엄동설한 답지 않게 봄날 같은 오늘입니다. 이렇게 權博士님을 추모하는 글을 우리 수자원 학회지에 실고자 쓰고 있는 지금도 믿기지 않는 겨울 날씨처럼 權博士님의 떠남도 실감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 글을 2층 저의 연구실에서 쓰고 있습니다만, 지금 바로 아래층 당신의 연구실에서 당신께서 집무하시는 것 같아, 쓰던 펜을 팽개치고 아래층으로 막 뛰어 내려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당신이 연구를 하시다 피곤하실 때면 차 한잔 마시면서 함께 담소를 즐기던 우리였는데, 정녕 계절을 떠나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더구나, 權博士님과 같은 날 이곳 충남대학교에 발령을 받아, 그것도 똑같은 전공으로 동거동락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학과장하던 시절이었죠. 학생들을 현장 실습 보내 놓고 순방지도차 창원에서 포항까지 들렀던 때가 생각납니다. 밤새도록 바둑을 두면서 시간을 소일하다 낮에는 둘다 꾸벅꾸벅 졸면서 남해와 동해의 푸른 바다의 갈매기 소리가 자장가로 들린다고 웃으면서 즐겼던 그 날들... 작년에는 변산반도에서 대하를 먹으면서 서해의 운치를 만끽하면서 투병의 시간 속에서나마 한 때의 즐거웠던 1박 2일의 여정 등. 그 수많은 지난 날의 일들이 다시는 가질 수 없는 한때의 추억으로만 변해 버렸습니다. 인간은 만나면 언젠가 헤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아무런 말씀도 없이 홀로 떠나버렸습니까!

權博士님, 당신께서는 경기도 양평에서 출생하시

어 고고한 기풍으로 불의에도 굴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셨으며, 학술분야에서도 언제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여 수자원 개발에 모든 성과 열을 쏟으신 걸 제 자신 잘 알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수자원을 연구하는 연구자나 실무자들께서 없어서는 안 될 수자원 공학을 저술한 그 능력은 금자탑이 되어 영원히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충실하셨던 것은 물론이고, 사회 및 학술활동에 있어서도 모든 정성을 다 바치셨습니다. 1965년에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시어 '68년부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근무하시면서 당시나 지금, 실무자에게 소망이 대상이 되었던 수자원개발기술사를 '75년에 취득하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셨고, '76년 9월부터는 후진양성을 위하여 충남대학교에 몸을 담게 되어 많은 제자들을 배출하시면서 훌륭한 교수로서 학문발전에 기여하셨습니다. 학교에 계시는 동안 '84년에 모교 서울대학교에서, 당시 우리나라에서 거의 빈약한 상태였던 댐운영의 최적화기법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을 취득하므로써, 우리나라의 이 분야에 선구자가 되었기에 그 업적의 지대함은 이루 표현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당신은 이에 그치지 않으시고, 병세가 악화되면서도 그토록 사랑하시며 정열을 쏟았던 수자원학회의 부회장을 맡으셔서 헌신한 점, 우리 수자원학회 회원들은 모두 경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대담회 이사, 미국토목학회 정회원, 대한토목학회 정회원 등 여러 학술단체에도 가입하시어 학구적인 열

* 충남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의를 다시 한 번 깨우치게 합니다. 저와의 마지막 용역보고서가 되어버린 금일 심진강 다목적댐 홍수 배제 능력 조사 보고서를 수행할 당시, 당신의 섬세하고 탁월한 능력에 제 자신이 여러번 혼자서 감탄한 바 있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에 항상 온 심혈을 기울이시어 자기 책임을 끝까지 수행하겠다는 투철한 정신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權博士님의 건강을 위하여 왜 말리지 못했나 하는 자책감도 가집니다.

이제 저는 다시 한 번 소크라테스가 그의 죽음을 당하기에 앞서 그의 제자를 향해서 말쑤한 자기의 슬기로움을 그의 후대에게 옮겨 심어주고, 그것을 이어받은 그의 후대가 또 다시 그의 슬기로움을 그들의 후대에게 옮겨 심어줌으로 해서 영생한다는 그 슬기로움의 뜻을 생각하게 됩니다. 평소에 이 말이 실감나게 내 뇌리속에 파고 들지 않았건만, 같은 동료이자 선배적인 당신을 생각하면 이 말이 제 가슴 속 깊이 파고 듭니다. 당신의 육신은 이 세상에서 다시는 볼 수 없으나, 당신이 평소에 행

하셨던 발자취는 이 세상의 밝은 등불이 되어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깊이 깊이 남아 후대에 이어질 것입니다.

權博士님, 병세가 악화되어 별세하기 며칠 전 문병을 갔을 때에도 몇 달만 누워 있으면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오히려 위로하며, 제 손을 꼭 잡아 주시던 그 모습은 지금도 제 마음을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정녕 그렇게 가셔야만 했는지요? 인생의 허무함을 다시금 뼈저리게 느끼게 합니다. 더구나, 출가도 시키지 못한 자녀들을 두고서 떠나버리신 당신이 애석하기 그지 없습니다.

權博士님의 그 고결하신 인격과 학문을 사랑했던 정신은 많은 사람들의 귀감으로서 영원히 추앙될 것이며, 아직도 못 다 이루고 남겨두신 일들은 우리 모두 힘이 자라는데로 성취시킬 것을 약속 드립니다.

“오늘은 나, 내일은 너”라는 누군가의 묘비명을 되새기며, 편히 잠드시기를……. ☞